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안태성¹ · 송영아²

¹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hn, Taesung¹ · Song, Young A²

¹Professor, ²Assistanc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An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Methods:** Pre and post-test study design was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t the completion of a fundamental nursing course. A convenience sample of 164 were recruit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st to December 1st in 2012. **Results:** The mean scores of the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a pre-test (3.73) to post-test (3.93). The mean scores of the self-esteem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a pre-test (3.05) to post-test (3.13).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were factors that affect nursing professionalism. **Conclusion:**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nursing education to cultivate nursing professionalism by improving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Nursing student, Self-esteem, Self-effica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서비스 전문화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질적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간호계에서도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Im, 2005).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이다(Weis & Schank, 2000). 최근 간호분야에서 문제 중 하나가 신입간호사가 임상에서 전문직 사회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볼 때 간호교육을 통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Cho와 Paik (2004)은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전문직관이 확고히 다져지기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간호업무가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는 자의식을 느끼며 갈등을 겪는다(Kang, Cho, Choi, & Kim, 2002). 따라서 앞으로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학생들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학의 정체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견해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확장된다(Schank & Weis, 200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Cho & Paik, 2004; Ha & Choi, 2011; Ham, Kim, Cho, & Lim, 2011; Ko & Kim, 2011; Kwon & Yeun, 2007)를 살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사회화, 자아존중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가치관,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 사회성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관계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 중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과 자기효능감 간에

주요어: 간호학생, 자기관중감, 자기효능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ong, Young A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155 Ansandaehak-ro, Sangnok-gu, Ansan 426-701, Korea
Tel: +82-31-400-7147 Fax: +82-31-400-7107 E-mail: sya414@ansan.ac.kr

Received: 10 October 2014 Revised: 1 December 2014 Accepted: 8 January 2015

상관관계가 있었으며(Kim, 2011), 또한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Whang, 2006),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Ko et al., 2011).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won & Yeun, 2007).

Schank와 Weis (2001)는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의 기본교육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간호이론과 실습을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어야 간호사로서의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의 관계와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변화 정도를 확인한다.
- 2)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3)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가정,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Weis & Shank, 2000). 본 연구에서는 Yeun, Kwon과 Ahn (2005)이 개발하고 Jung (2007)이 사용한 것을 Kim (2008)이 요인분석을 하여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수용성, 또는 자신과 타인의 능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요소이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의 도구를 Jeon (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나 인적자원,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즉,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포괄적인 판단이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Hong (199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다(Ha,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Lee (2004)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의 신입생이 한학기 동안 기본간호학 강의를 듣기 전과 들은 후 간호전문직관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2년 한 A시 소재 1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 중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는 기본간호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 9월 초에 실시하고, 2차 조사는 한 학기를 마친 시점인 12월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Effect size f^2 .15, 검정력($1-\beta$) .95로 하였을 때 적정표본수가 107명이었다. 총 200부를 편익추출하였으나 휴복학으로 인해 1차와 2차 조사를 모두 정확하게 기입한 16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도구는 Yeun 등(2005)이 개발한 29문항을 Jung

(2007)이 사용한 것을 Kim (2008)이 요인분석을 통해 18문항으로 축소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 (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 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도구는 Rog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self-esteem) 도구를 Jeon (1974)이 번역한 10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곧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척도의 구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도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Hong (1995)이 번역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였다.

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도구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하여 Lee (2004)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만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8문항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4)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일

반적인 특성,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는 무교가 43.3%였고, 기독교가 42.7%,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6.1%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가 51.2%였고, 다음으로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26.2%,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가 18.3%,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가 4.3%로 나타났다. 간호학 만족도는 만족이 62.8%, 보통이 34.8%, 불만족이 2.4%로 나타났다(Table 1).

2.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변화

기본간호학 강의 전인 1차 조사와 강의를 마친 후인 2차 조사에서 간호전문직관 변화 정도의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1차가 3.73점, 2차가 3.93점으로 1차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하위영역 중 전문직 자아개념은 1차가 4.30점, 2차가 4.47점으로 1차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1$) 사회적 인식은 1차가 3.43점, 2차가 3.74점으로 1차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간호전문성은 1차가 4.15점, 2차가 4.37점으로 1차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1$). 또한 간호계 역할도 1차가 4.27점, 2차가 4.45점으로 1차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자아존중감은 1차에 5점 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164)

Characteristic	n	%	
Religion	Christian	70	42.7
	Catholic	10	6.1
	Buddhist	10	6.1
	None	71	43.3
	Other	3	1.8
Motivation for nursing	Score of high school	7	4.3
	Fitness	84	51.2
	High employment	43	26.2
	Recommendation	30	18.3
Nurs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103	62.8
	Generally	57	34.8
	Dissatisfaction	4	2.4

Table 2. Degree of change fo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steem,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among nursing students (N = 164)

	Primary test		Secondary test		t	p
	Mean	SD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3.73	.431	3.93	.472	-4.018	<.00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30	.523	4.47	.527	-2.787	.006
Social awareness	3.43	.745	3.74	.750	-3.813	<.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4.15	.614	4.37	.645	-3.157	.002
Roles of nursing service	4.27	.627	4.45	.634	-2.538	.012
Originality of nursing	1.58	.804	1.60	.901	-0.291	.771
Self-esteem	3.05	.398	3.13	.424	-1.732	.084
Self-efficacy	3.23	.266	3.21	.304	0.411	.681
General self-efficacy	3.49	.623	3.50	.646	-0.149	.882
Social self-efficacy	3.11	.205	3.09	.223	0.982	.327
Major satisfaction	4.20	.507	4.25	.513	-0.824	.411
General satisfaction	4.28	.663	4.35	.631	-0.853	.394
Recognition satisfaction	4.57	.496	4.60	.508	-0.550	.583
Course satisfaction	3.74	.775	3.81	.788	-0.778	.437
Relation satisfaction	3.77	.752	3.80	.829	-0.326	.745

점에 3.05점이었고, 2차에는 3.13점이었으나 변화 정도의 차이 검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1차에서 5점 만점에 3.23점이었고, 하위영역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3.49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3.11점이었다. 2차에서는 자기효능감 3.21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3.50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3.09점이었으나 변화 정도의 차이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만족도 1차에서 5점 만점에 4.20점이었고, 하위영역별에서는 인식만족이 4.57점, 일반만족이 4.2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관계만족은 3.77점, 교과만족은 3.74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2차에서는 전공만족도가 4.25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인식만족이 4.60점, 일반만족이 4.3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과만족은 3.81점, 관계만족은 3.8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1차와 2차의 변화 정도의 차이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1차 조사에서 일반만족과 전공만족도 간에는 $r = .879 (p < .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 중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는 $r = .259 (p < .01)$ 에서 $r = .423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는 $r = .197 (p < .05)$ 에서 $r = .437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과는 $r = .174 (p < .05)$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중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는 $r = .201 (p < .05)$ 에서 $r = .405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중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전문성, 간호계 역할, 간호전문직관 전체와는 $r = .231 (p < .01)$ 에서 $r = .600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만족, 인식만족,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중 간호의 독자성과는 $r = -.165 (p < .05)$ 에서 $r = -.285 (p < .01)$ 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차 조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과는 $r = .896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간호의 독자성과는 $r = -.187 (p < .05)$ 의 부적 상관관계를,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간호전문직관은 $r = .292 (p < .01)$ 에서 $r = .453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간호전문직관은 $r = .172 (p < .05)$ 에서 $r = .375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간호계 역할과는 $r = .156 (p < .05)$ 의 정적 상관관계를, 간호의 독자성과는 $r = -.277 (p < .01)$ 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전체와 간호의 독자성과는 $r = -.235 (p < .01)$ 의 부적 상관관계를,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간호전문직관은 $r = .230 (p < .01)$ 에서 $r = .320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중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전문성, 간호계 역할, 간호전문직관은 $r = .193 (p < .05)$ 에서 $r = .583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만족,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중 간호의 독자성과는 $r = -.172 (p < .05)$ 에서 $r = -.198 (p < .05)$ 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1차에서의 설명력은

(N = 164)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steem and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steem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Social awareness	Professionalism of nursing	Roles of nursing service	Originality of nursing	Total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Total	General satisfa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Course satisfaction	Relation satisfaction	
1st Nursing Professionalism	.369**	.449**												
Roles of nursing service	.608**	.494**	.597**											
Originality of nursing	-.168**	.045	-.181**	-.173**	0.09									
Total	.746**	.825**	.685**	.750**	.400**									
Self-esteem	.396**	.259**	.296**	.423**	.400**									
Self-efficacy	.437**	.197*	.198*	.263**	-.102	.340**	.269**	.525**						
Social self-efficacy	.174*	-.058	.111	.091	-.095	.064	.269**	.164*	.728**					
Total	.405**	.109	.201*	.236**	-.124	.276**	.856**	.461**						
Major Satisfaction	.535**	.328**	.320**	.413**	-.165**	.483**	.556**	.417**	.269**	.541**				
Recognition satisfaction	.480**	.231**	.326**	.343**	-.285**	.379**	.353**	.297**	.215**	.366**	.595**			
Course satisfaction	.431**	.446**	.399**	.442**	-.037	.547**	.310**	.311**	.166*	.310**	.577**	.422**		
Relation satisfaction	.407**	.273**	.238**	.296**	.009	.402**	.326**	.280**	.001	.233**	.412**	.279**	.605**	
Total	.600**	.399**	.406**	.478**	-.172**	.573**	.517**	.427**	.230**	.492**	.879**	.762**	.794**	.672**
2nd Nursing Professionalism	.572**	.547**												
Professionalism of nursing	.707**													
Roles of nursing service	.677**	.573**	.64**											
Originality of nursing	-.152	-.097	-.149	-.133	.059									
Total	.855**	.844**	.797**	.773**	.408**									
Self-esteem	.453**	.292**	.391**	.410**	-.187*									
Self-efficacy	.375**	.172*	.336**	.299**	-.145	.306**	.573**							
General self-efficacy	.152	.042	.101	.156*	-.277**	.063	.288**	.490**						
Social self-efficacy	.320**	.133	.269**	.273**	-.235**	.230**	.517**	.896**	.826**					
Total	.507**	.569**	.473**	.433**	-.198*	.570**	.511**	.446**	.228**	.404**				
Major Satisfaction	.424**	.411**	.372**	.350**	-.150	.445**	.152	.272**	.082	.140	.648**			
Recognition satisfaction														
Course satisfaction	.396**	.458**	.405**	.392**	-.111	.477**	.423**	.335**	.168*	.302**	.541**	.360**		
Relation satisfaction	.244**	.310**	.193*	.251**	-.046	.300**	.311**	.251**	.111	.219**	.408**	.259**	.728**	
Total	.515**	.570**	.472**	.461**	-.172*	.583**	.491**	.386**	.193*	.348**	.872**	.757**	.792**	.708**

*p < .05, **p < .01.

39.1%로 자아존중감($\beta = .194, p < .05$), 교과만족($\beta = .349, p < .001$)이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에서의 설명력은 40.3%로 일반만족($\beta = .303, p < .01$), 교과만족($\beta = .291, p < .01$)이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2학기 처음으로 전공과목 중 기본간호학 이론을 이수하기 전과 한 학기 강의를 마친 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1차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73점, 2차 조사에서는 3.9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존 연구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o와 Kim (2011)에서 3.67점, Ham, Kim, Choe, Lim (2011)의 연구에서는 3.43점이었고, 3년제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won과 Yeun (2007)은 평균 3.60점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 중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전문성,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2차 조사 결과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Ko와 Kim (2011)의 연구와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계의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아직 다양한 전공과목과 임상실습을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이므로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의 순위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1차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05점이었고, 2차 조사에서는 3.13점으로 점수의 변화는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on과 Yeun (2007)의 연구결과 4점 만점에 2.71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Kim, Lee와 Yang (200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에게 해결중심 집단상담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신입생 1학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졸업하기 전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개별 학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은 1차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23점, 2차에서는 3.21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점수가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Yoo, Son, Yoo와 Hong (2006)의 연구에서 3.21점으로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였다. 반면에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Ham 등(2011)의 연구에서는 3.60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3.70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Yoo 등(2006)은 2학년과 4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 비교에서 오히려 낮아진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목에 대한 배움이 더해질수록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은 갖게 되나 실제적인 임상상황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 등을 간접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1차 조사에서 4.20점, 2차 조사에서 4.25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 인식만족이 4.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일반만족이 4.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Ham 등(2011)의 연구에서는 3.88점으로 나타났고, 인식만족이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 = 164)

		B	SE	β	t	p
1st	Self-esteem	0.211	0.082	.194	2.582	.011
	General self-efficacy	0.023	0.058	.033	0.393	.695
	Social self-efficacy	-0.19	0.14	-.09	-1.35	.179
	General satisfaction	0.088	0.063	.135	1.392	.166
	Recognition satisfaction	0.077	0.068	.089	1.13	.26
	Course satisfaction	0.194	0.05	.349	3.89	<.001
	Relation satisfaction	0.026	0.047	.045	0.558	.578
		R ² = .395 Adjusted R ² = .391 F = 14.29 p < .001				
2nd	Self-esteem	0.136	0.091	.123	1.502	.135
	General self-efficacy	0.052	0.063	.072	0.838	.404
	Social self-efficacy	-0.263	0.15	-.124	-1.751	.082
	General satisfaction	0.226	0.075	.303	3.036	.003
	Recognition satisfaction	0.129	0.077	.139	1.68	.095
	Course satisfaction	0.175	0.06	.291	2.933	.004
	Relation satisfaction	-0.065	0.051	-.114	-1.266	.207
		R ² = .407 Adjusted R ² = .403 F = 14.29 p < .001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Jeong과 Shin (2006)의 연구에서 인식만족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1차 조사결과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성이 가장 높았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간호전문직관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간호전문직관도 높았다. 2차 조사에서도 간호전문직관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에서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나 1차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점에서 조사한 Ham 등(2011)은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Kwon과 Yeun (2007)은 전공만족,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사회성 등의 변수들과의 관련성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아직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학년에 따른 관련 변수를 더 조사하여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의 설명력은 39.1%로 자아존중감과 교과만족이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간호전문직관 전체도 높아지고 교과만족도가 높아지면 간호전문직관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교과만족도,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2차에서는 설명력은 40.3%로 일반만족과 교과만족이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만족도, 교과만족도가 높아지면 간호전문직관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일반만족도, 교과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 봉사성으로 20.9%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교과만족, 인식만족, 리더십과 인기, 사교성을 유의한 변수로 포함하여 간호전문직관을 37.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 등 (2011)의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종교,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간호사이미지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1학년 1학기에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학기에 처음 간호학 전공필수과목을 듣게 되면서 간호학에 대한 전문직관

을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의 하부영역은 기본간호학 이론만으로 형성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전공과목과 교과 외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는 데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립과 성숙을 위해서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간호학생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외에 봉사정신, 자기효능, 간호사이미지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2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과 관련 요인으로 나타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시기는 기본간호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과 한 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1차 조사, 2차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교과만족도가 높으면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고, 한 학기 전공과목 중 처음으로 기본간호학 수업 후의 조사에서는 일반만족도, 교과만족도가 높아지면 간호전문직관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외 프로그램 적용 등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상호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제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4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간호전문직관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s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 Cho, K. J., & Paik, S. N. (2004). Comparing nursing perspective between BSN and RN-BSN program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4), 417-425.
- Ha, H. S. (2000). Indicator for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Ha, N. S., & Choi, J. (2011). A longitudinal study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8, 73-85.
- Ham, Y. S., & Kim, H. S. (2012).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19(3), 363-373.
- Ham, Y. S., Kim, H. S., Cho, I. S., & Lim, J. Y.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7(3), 538-546.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Im, D. S. (2005). *A study on nursing profess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Medical Journal*, 11, 107-129.
- Jeong, M. H., & Shin, M. A.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 Jung, S. H. (2007). *The ethical attitude related to DNR and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Kang, H. S., Cho, K. J., Choi, N. H., & Kim, W. O. (2002). Reconstruc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470-481.
- Kim, M. H. (2008).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Kim, M. S. (201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159-167.
- Kim, M. S. (201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159-167.
- Kim, S. J., Lee, C. S., & Yang, M. H. (2004). Effects of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on school attitude, self-esteem and hope in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7(2), 73-83.
- Kim, Y. H. (2009).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16(3), 307-315.
- Ko, J. E., Kim, M. H., Kim, E. J., Kim, H. J., Eom, J. E., & Lee, H. A., et al. (2011).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Ewha Nursing Journal*, 45, 29-44.
- Ko, Y. J., & Kim, I. K.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 Kwon, Y. M., & Yeun, E. J.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 285-292.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E., Ha, N. S., Lee, Y. M., Yom, Y. H., & Yee, J. A. (2000). Comparison of self-disclosure and self-esteem between baccalaureate and associate degre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6(2), 165-17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nk, M. J., & Weis, D. (2001).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 value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17(5), 226-233.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Weis, D., & Schank, M. J. (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7, 114-120.
-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 205-213.
-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091-1100.
- Yoo, M. S., Son, Y. J., Yoo, I. Y., & Hong, S. K. (2006).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linical skil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13(3), 343-350.